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인문학강좌II'

“풍부한 인문학 바탕 창조적 화풍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간송미술관 최완수 연구실장 '수묵화의 미학'

와 '심화 발전'으로 요약했다. 중국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한 뒤 중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발전시켜 더욱 새롭고 풍부한 문화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석굴암을 예로 들었다. 석굴암에는 조성 당시 불교의 다양한 종파의 이념과 철학이 간단 명료하게 녹아있다. 불교 각 종파의 사상이 절묘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아름다운 곳이 됐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서 유입된 주자성리학을 완성한 이을곡 성리학도 소개했다.

“조선이 성리학을 우리의 몸에 맞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서구 문화도 우리 손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닌 문화적 힘은 경제 정선의 삶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성리학을 통해 이념으로 삼았기에 그림마저도 무조건 중국의 것을 따랐다고 한다. 우리의 산을 보면서 중국 그림에 등장하는 중국의 산을 그리고, 중국의 물소를 그려야 했다.

경쟁은 중국 화법이 아니라 우리의 산을 현장감이 생생히 살아있는 새로운 화법으로 그렸다.

최 실장은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완성

“이념과 철학이 뿌리라면 예술과 문화는 꽃입니다. 무궁화 뿌리에서는 무궁화 꽃만 피는 것처럼 이념과 철학은 문화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좋은 생각과 이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평생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설파해 온 간송미술관 최완수 연구실장(69)의 우리 문화 강의는 막힘이 없었다. 14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문학강좌II-광주의 미학'을 창조하자' 강사로 나온 최 실장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우리 문화의 특징을 '요점 정리'



14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최완수 연구실장이 정선의 작품과 생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페스티벌 오! 광주 “남은 공연 기대해주세요”

16~17일 '동연'·19~20일 '연의 노래' 빛고을시민문화관

지난 7월 1일 개막한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 공연 축제에서는 지역 공모과정을 거쳐 뽑힌 4개 작품이 공연 애호가들을 만나고 있다.

놀이과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은 기존의 마당극 형식 대신, 무대 위로 작품을 끌어 올려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고 주역으로 출연한 손재오, 박강희씨의 연기도 인상적이었다.

타악 그룹 얼수의 '인수화풍'은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7명의 단원들이 호흡을 맞춰 두드러대는 대북, 장고, 드럼, 켈레 등 강렬한 타악 연주는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오는 16~17일 오후 6시 광주 빛고을시민

문화관에서 공연되는 극단 진달래 피네의 연극 '동연'은 먼저 가 버린 사랑에 대한 절절함이 담긴 작품이다. 꿈에서만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 있는 그녀가 미친 듯이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떠난 이의 마음은 한 없는 슬픔에 빠져든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 '블루 사이공',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을 쓴 김정숙씨가 희곡을 맡았으며 극단 대표 최영화씨가 연출했다.

지난해 함께 호흡을 맞췄던 주인공 윤영배·이유진씨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과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이 함께 무대에 올리는 '연의 노래' (19~20일 오후 7시30분)는 '심청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두 단체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의 융합을 시도한 공연이기도 하다.

심청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강인한 인간상을 제시했고, 각기 다른 호흡과 몸짓으로 풀이낸 춤사위가 인상적이다.

전국무용제에서 수상했던 김미선씨가 심청역으로 출연하며 유길호·최인경·한명선·황소희씨 등 두 단체의 무용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62-670-7465.



“여름밤 식혀줄 명화속으로 고고씩~”

광주미디어센터, 15일·29일 야외 상영회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무더위에 지쳐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한여름밤의 영화산책' 야외상영회를 개최한다.

15일 오후 8시에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드래곤 길들이기'(애니메이션, 98분)를 상영한다. 드래곤 길들이기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판타지다.

오는 29일 오후 8시에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호수 야외무대에서 '맘마미아'(뮤지컬·로맨스, 108분)를 상영한다.

맘마미아는 원작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 스웨덴 출신의 팝그룹 아바(ABBA)의 음악적 힘에 기상천외한 발상의 드라마가 더해져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방석이나 가족용 돛자리, 음료수 등을 준비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 말했다.



'맘마미아' /김경민기자 kki@

청아한 '대금산조'에 빠져볼까

채광자 대금독주회 21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대금연주자 채광자(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 차석)씨가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는 '목요열린국악 한마당' 초청 무대다.

채씨는 이번 독주회에서 은은하면서도 날

카로운 음률이 특징인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연주한다.

전남대 국악과와 조선대학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및 동 대학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채씨는 대금연주단 어울림 대표, 사)내뽕소리 민족예술단 지도위원 등



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1관 트랜스포머3 (12세)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빨간모자의 진실2 (전체)	2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2관 트랜스포머3 (12세)
3관 고양이:죽음을보는두개의눈 (15세)	3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3관 고양이:죽음을보는두개의눈 (15세)
4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4관 동산개 (18세)	4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5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5관 트랜스포머3 (12세)	5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6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6관 씨니 (15세)	6관 포인트블랭크 (18세)
7관 트랜스포머3 (12세)	7관 트랜스포머3 (12세)	7관 씨니 (15세)
8관 트랜스포머3 (12세)	8관 고양이:죽음을보는두개의눈 (15세)	8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9관 트랜스포머3 (12세) / 쿼터펀더	9관 빨간모자의 진실2 (전체)	9관 트랜스포머3 (12세)
10관 씨니 (15세)	10관 포인트블랭크 (18세)	10관 트랜스포머3 (12세)

상무점연결 광범(1번 or 2번)→0번 ☎ 1588-7941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초호화캐스팅 3D 애니 블록버스터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섹스있는 영화산책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